

〈특집 : 근세 동아시아 세계 물품의 교역과 글로벌리티〉

청대 중기 미가와 인구, 그리고 화폐 -건륭년간 미가변동 해외연구 검토-

홍 성 화 *

〈목차〉

- I. 머리말
- II. 청대 미가변동에 관한 초기 연구
- III. 경기변동에 관한 林滿紅와 岸本美緒의 논쟁
- IV. 陳春聲, 黒田明伸, 彭凱翔, 폰 글란의 연구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청대 건륭년간의 물가 상승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여러 학설들을 정리하였다. 초기 彭信威와 全漢昇는 주로 재정 지출과 인구 증가를 각각 원인으로 상정하였다. 그 뒤에는 내재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 특히 세계경제와의 연동 속에서 은유입을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점차 통용력을 얻게 되었다. 다만 건륭년간을 두 시기로 나누어서 1736~1775년은 인구증가가 화폐증가보다 빠르고 화폐증가가 농업성장보다 빠른 시기여서 경제적으로 불황기였으며, B期인 1776~1795년은 화폐증가가 농업성장보다 빠르고 농업성장이 인구증가보다 빠른 시기로 호황기라고 보았다. 반면 岸本美緒는 이에 대해서 건륭초기 역시

*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부교수

호황기였다는 논지에 기반하여 이에 반박하였다.

黒田明伸을 비롯하여 폰 글란, 彭凱翔 등의 1990년대 이후의 연구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 다시 해외로부터의 은유입을 강조하기 보다는 중국 사회의 내부 질서 문제로 다시 복귀하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청대 물가 변동의 원인을 단순히 인구증가나 화폐 증가라는 식으로는 물가변동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했다고 말하기 불충분해진 것만은 사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복잡성을 낳은 청대 중국사회가 어떠한 시장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도 규명해야 할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淸代, 건륭연간, 시장론, 화폐, 은, 동전, 물가, 미가

I. 머리말

청대 중국 경제사연구는 최근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 과거 지주전호제 연구나 국가의 부역체계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왔지만, 미국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경제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경제구조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토마스 로스키와 릴리언 리에 의해서 1992년 출간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중국의 역사』¹⁾가 그 좋은 예일 것이다. 이 책에서

1) Rawski and Li eds, *Chinese History in Economic Perspectiv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이 책은 청대 미가에 관한 5편과 나머지는 20세기 토지, 노동, 자본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청대 미가에 관한 부분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왕업건의 논문은 1750년대에 이르기까지 강남델타지역의 미가시계열을 작성

는 종래 미국에서의 중국경제사 연구가 사회사적·제도사적 분석에 치우쳐서 '경제학적' 분석은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경제학적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역사연구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이어 받아서 최근 국내에도 소개된 리차드 폰 글란(Richard Von Glahn)의 최근 개설서²⁾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아울러서 건륭연간 후기의 물가상승과 도광연간의 물가 하락 내지 불황이라는 극히 대조적인 경제 현상에 대한 해외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³⁾

이러한 차원에서 본고에서는 이에 관련된 중요 해외연구를 정리하여 그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청대 중기 시기 경제 변동을 화폐와 인구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경제 현상을 '직선적'이며 단계를 밟아서 올라간다는 시대구분론에 입각해서 해석해 왔지만, 위와 같은 해외연구에서는 호황(好況)과 불황(不況)이라는 파동적인 경기순환으

하고 그 장기적 변동 요인을 ① 인구, ② 화폐, ③ 기후조건 등의 원인에서 검토를 하였다. 시장통합도(market integration)라는 측면에서 17세기까지는 중국측이 통합도가 앞서 있었지만, 18세기 후반에는 유럽에 역전되었다고 하고 있다. 릴리언 리는 건륭초년부터 청말까지의 직예성 곡물가격을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퍼두가 분석한 감숙성 곡물가격은 1760년 전후의 동투르크스탄 출병 시에 일시적으로 급등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왕과 퍼두의 호남곡물가격 연구는 미곡이 실제로 수송되는 루트를 기술사료에 의해서 분석한 뒤에 분석을 하고 다른 연구와 비교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을 서술하고 있다. 작자에 의하면 호남동북부의 미곡 수출지대의 미가는 府內에도 府와 府 사이에도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지대 이외의 상관성은 극히 낮다고 한다.

2) 리처드 폰 글란, 류형식 역, 『폰 글란의 중국경제사』, 소와당, 2019(Von Glahn, Richard., *The Economic History of China : From Antiquity to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3) 도광연간의 물가 하락현상에 대해서는 吳承明, 『中國的現代化: 市場與社會』, 三聯書店, 2001; 「18世紀與19世紀上葉的中國市場」, 豊岡康史·大橋厚子編, 『銀の流通と中國・東南アジア』, 山川出版社, 2019 참조. 하병체 역시 강희후기부터 건륭연간까지 호경기였지만, 도광년간에 들어와서 경기저하 현상이 현저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허핑티(何柄楨), 정철웅 역, 『중국의 인구』, 책세상, 1994, 322-325쪽.

로서 이해하고 있다. 이처럼 ‘호황’과 ‘불황’이라는 파동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산력이 단계적으로 계속 상승한 것 같은 ‘직선적 역사관’을 대신해서 각 시기마다의 특징이 훨씬 더 선명하게 제시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더 나아가 그 경기변동(business cycle)의 근본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청대 경제사의 연구 분야에서 주목을 받아 왔던 측면 가운데 하나는 해외 무역과의 관련이었다. 이 연관성에 대해서는 프랑크의 『리오리엔트』⁴⁾로 인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만, 이미 1940년대부터 착실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청대 경제사는 국내적으로는 인구, 유통, 화폐 정책과 아울러서 해외로부터의 은유입이라는 국내외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비로소 이해가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 생각된다. 여기에 특히 핵심적인 고려 요소인 인구 증가, 은과 동전 등의 화폐 공급 측면에서는 이미 1920년대부터 Pritchard⁵⁾나 余捷瓊의 연구⁶⁾가 이루어졌다. 그 뒤 청대 은전비가 변동에 대한 小竹文夫의 연구⁷⁾도 빼 놓을 수 없다. 청대에는 상당히 뚜렷한 불황과 호황을 반복해 왔다. 여기에 호황과 불황의 중요한 지표로서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었던 것이 바로 쌀 가격, 즉 미가(糧價)라고 할 수 있다.⁸⁾ 그렇다면 미가는 과연 어떠한 이유에

4) 안드레 군더 프랑크, 이희수 역, 『리오리엔트』 이산, 2003.

5) Pritchard, Earl H., *Anglo-Chinese Relations During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29.

6) 余捷瓊, 『1700-1937年中國銀貨輸出入的一個估計』, 商務印書館, 1940. 이 시기 연구에서 청대의 은유입에 대한 추계는 주로 Morse,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馬士, 中國海關史研究中心組等譯, 『東印度公司對華貿易編年史: 1635-1834年』, 中山大學出版社, 1991)에 근거하였다.

7) 小竹文夫, 「清代における銀錢比價の變動」, 『近世支那經濟史研究』 弘文堂書房, 1942.

8) 吳承明, 『中國資本主義與國內市場』,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253쪽. 何柄棣의 견해에 따르면 청대 당시 전체 식량 중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였다고

서 변동하였던 것일까? 본고에서는 이러한 물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고에서는 1950년대 이후의 해외 학계의 주요 연구를 중심으로 시간 순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II. 청대 미가 변동에 관한 초기 연구

1. 彭信威, 『中國貨幣史』⁹⁾

彭信威(1907-1967)는 자신의 대저 『中國貨幣史』 속의 청대 부분에서 화폐는 물론이고 관련 물가변동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는 ① 강희연간 인구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의 격증 현상은 이른바 ‘永不加賦’ 즉 ‘盛世滋生人丁’으로 인하여 등록된 인구가 늘어난 측면이 컸다고 한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강희연간은 재정지출이 적은 편이었지만 인구 증가는 매우 큰 편이었는데, 도리어 미가는 안정적이었다. 이를 보면 은의 구매력에 대한 인구 증가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반면 건륭연간에는 은의 가치가 하락하였는데, 인구증가가

한다. 허핑티(何柄楙), 1994, 232쪽. Yeh-chien Wang, “Secular Trends of Rice Prices in the Yangzi Delta, 1638-1935”, Rawski and Li eds, 1992, p.35 참조. 18세기 후반 강남지역에서 이루어진 미곡 거래량은 1,500만석에서 2,000만석 사이였으며, 그 중 5백만석에서 6백만석은 북중국과 남동부 해안으로 운송되었다. 또한, 약 1,500만석의 豆類와 잡곡 등이 만주와 화북으로부터 해운이나 대운하를 거쳐 강남 델타지역으로 운반되었다.

9) 彭信威, 『中國貨幣史』, 上海人民出版社, 1965. 이 책은 1954년 처음으로 출판되었고, 대폭 수정을 거쳐 1958년 上海人民出版社에서 출판되었다. 다시 1962년 증보를 거쳐 1965년 출간되었다. 여기에서는 1965년판본을 기준으로 하였다.

주요한 원인은 아니었다. 건륭연간 물가증가의 원인은 大小金川 원정이나 新疆 원정 등의 군사비 지출로 인한 재정지출의 증가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852쪽).

다른 한편, 그는 은의 외부유입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아메리카 은의 대량 유입 현상은 서구에서도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지만, 중국의 물가 상승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대략 1세기 정도 늦고 상승폭도 작은 편이라고 하고 그 원인은 중국의 은유입이 주로 영국 동인도회사를 통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즉 스페인⇒영국⇒청조 중국의 순서로 은이 유입되었고 그 수량도 결코 많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853쪽). 그에 따르면 강희22년부터 도광13년까지 153년 동안에 유럽선을 통하여 중국으로 유입된 은은 8~9,000만냥 이상이라고 계산하고 있다. 그의 추계대로라면 연평균 52만냥~58만냥 정도가 유입된 셈이다.

2. 全漢昇, 「아메리카 은과 18세기 물가혁명」

全漢昇(1912-2001)은 1957년 「美洲白銀與十八世紀中國物價革命的關係」라는 논문¹⁰⁾을 발표하였는데, 이 논문은 관련 사료의 망라와 청대 물가 변동의 전체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훗날의 연구에 다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는 蘇州, 揚州, 절강 지역 등의 관련 사료 속에서 공통적으로 18세기 후반부터 물가, 특히 米價가 상승했다는 점을 지적한 뒤 18세기 중국에도 서구의 '물가혁명'¹¹⁾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결론 맺고 있다.¹²⁾ 그

10) 全漢昇, 『中國經濟史論叢』 2冊, 新亞書院, 1972에 수록.

11) 16세기 이후 유럽의 가격혁명에 대해서는 피에르 빌라르, 김현일 역, 『금과 화폐의 역사-1450-1920』, 까치, 2000, 9장과 10장; 服部春彦, 「16·7世紀におけるスペインの新世界貿易とフランス」, 『史林』 66-6, 1983 참조.

리고 물가혁명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외국 은(銀)의 유입을 분석하고 있다. 1700-1830년 사이에 중국으로 유입된 아메리카 은은 5억 페소¹³⁾ 정도라고 하고(546쪽), 디

〈표 1〉 全漢昇이 추계한 은유입량

유럽 → 광주무역	약 4억 페소
갈레온 무역	약 1억 페소
도합	약 6억 페소

코민(De Comyn)의 추계에 의거하여 1571-1821년까지 갈레온 무역을 통해서 마닐라까지 4억 페소가 운반되었고 그 중에서 1/4, 즉 1억 페소 정도가 중국으로 유입되었다고 하고 있다. 다만 1970년 발간된 『明清間美洲白銀의輸入中國』이라는 논문¹⁴⁾에서 앞서 디 코민(De Comyn)의 추계가 지나치게 낮으며 마닐라로 유입된 멕시코 은의 절반 정도가 중국으로 유입되었다고 수치를 정정하였다. 즉 최종적으로는 1700-1830년에 중국으로 유입된 아메리카산 은은 6억 페소이고, 이를 중국 화폐 단위인 兩으로 환

12) 반면 안드레 군더 프랑크는 청대 물가상승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해외로부터의 은유입으로 인하여 생산증대와 인구성장이라는 이루어짐으로써 이러한 물가상승 분을 상쇄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안드레 군더 프랑크, 『리오리엔트』, 268-269쪽 참조.

13) 전한승이나 왕업건, 임만홍 모두 논문 원문에는 해외 은화의 단위로서 '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라틴 아메리카를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 제국이 발행한 페소(peso)를 가리키는 것이다. 스페인 제국은 멕시코에 화폐주조소를 짓고 대량의 은을 은화로 주조하였다. 이렇게 하면 바다를 통해 운반하기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 돈이 바로 스페인 달러, 혹은 멕시코 달러이다. 이 멕시코 달러가 비단이나 도자기와 교환되어 명나라에 유입되었다. 百瀬弘, 『明清社會經濟史研究』, 研文出版, 1980, 49-50쪽 참조. 달러는 독일어로 계곡을 뜻하는 탈(Tal)에서 나왔다. 당시 보헤미아의 은광 이름을 딴 요하힘스탈러(Joachimsthaler)라는 은화와 스페인 8레일화가 은 함유량이 서로 같다는 이유로 8레일화를 달러라고 불렀다. 그리고 달러기호 \$는 원래 스페인계 화폐 단위인 페소(peso)를 표시하는 기호였다고 한다. 당시 1페소의 순은 함유량은 25.5g으로, 1톤의 은은 약 4만 페소에 해당한다. 중국에서 銀 1량의 무게는 약 36.7g 정도였는데, 따라서 1페소는 銀 0.66-0.7兩 정도에 해당하며, 1톤의 은은 약 2만 7,200량이 된다.

14) 全漢昇, 『中國經濟史論叢』 1冊, 新亞書院, 1972에 수록.

산하면 약4.3억냥이며, 매년 평균 330만냥이 되는 셈이다.¹⁵⁾

이와 아울러서 18세기 후기를 경계로 하여 동전을 둘러싼 사회적 관행 역시 오른쪽 표와 같이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표 2〉 참조). 하지만 그가 ‘18세기 물가

〈표 2〉 청대 동전 가치와 순도의 변화

동전가치	錢貴 ⇒ 錢賤
制錢 순도	높음 ⇒ 낮아짐
	私銷 ⇒ 사주전 범람

혁명’의 최종적인 원인으로 파악한 것은 은유입이 아니라, 인구 증가로 파악하였다는 점은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인구 증가로 인하여 변경지역의 경지가 개발되고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생산원가의 상승을 가져왔고 다시 이것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파악하고 있다.¹⁶⁾

3. 岸本美緒, 「청대 전기 강남의 미가동향」

한편 이와 같은 청대 물가에 대한 관심은 일본 학계에서도 등장하였다. 특히 中山美緒(=岸本美緒)는 1978년·79년 각각 「청대 전기 강남의 미

15) 안드레 군더 프랑크는 1550년부터 1800년 250년간, 전 세계에서 생산된 13만 7천톤의 은 가운데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은은 약 60,000톤(약 24억 페소)으로 약 절반이 유입되었다고 하고 있다(『리오리엔트』, 257쪽). 이를 兩으로 환산하면 16억량이 되며 연간 640만냥이 되는 셈이다. 반면 1940년대 余捷瓊의 추계에 따르면 1700년부터 1751년까지 유럽선에 의한 은유입은 6,800만 페소(연평균 130만 페소 = 95만냥) 정도였고, 1752년부터 1800년까지의 수입액은 1억479만 페소(연평균 213페소 = 156만냥)라고 한다(『1700-1937年中國銀貨輸出入的一個估計』, 36쪽). 위의 견해들을 보면, 중국으로의 은유입량을 둘러싸고 연구자 사이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청대 물가변동의 주요 원인으로서 인구증가를 거론하고 있는 연구로서 蔣建平, 『清代前期米穀貿易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992, 193쪽; 龔勝生, 「從米價長期變化看清代兩湖農業經濟的發展」, 『中國經濟史研究』 1996-2기를 참조.

가동향」과 「청대 전기 강남의 물가동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일본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던 청대 전기의 물가를 망라하여 제시 하면서, “건륭연간 전반의 등귀는 인구증가를 주요인으로 하는 주곡 중심의 등귀이고, 건륭중기 이후의 등귀는 화폐유통량의 증대에 의한 일반 물가의 등귀였다고 하는 가설이 가능할지 모르나, 미곡, 생사 이외의 상품 등귀시기를 보여주는 상세한 자료가 없는 현재로서는 단편적인 자료로부터는 판단하기 불가능하며, 훗날의 연구를 기약한다”¹⁷⁾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岸本美緒는 은과 경기변동을 논한 宮崎市定 등의 영향을 받아서 명 말청초 시기를 중심으로 해외로부터의 은유입과 물가의 관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하여, 명말 경지 가격의 변화, 천계령과 강희연간의 불황(穀賤), 그리고 청대 대외교역과 경기변동에 관한 논고들을 모아서 『清代中國の物價と經濟變動』(研文出版, 1997)으로 간행하였다. 청대 경제사에 관한 岸本の 시대구분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7) 岸本美緒, 『清代中國の物價と經濟變動』, 167쪽, 각주 30. 한편 岸本은 일본 학계에서 최초로 은으로 중국경기변동을 설명하려고 하였던 시도로서 1963년에 발표된 宮崎市定の 서평(同, 「書評: 吉川幸次郎「宋詩概説」, 『東洋史研究』 22-1, 1963, 同, 『宮崎市定全集』 24권, 岩波書店, 1994에 수록)을 들고 있다. 『清代中國の物價と經濟變動』 272쪽, 각주 5를 참조. 한편 宮崎市定은 후한대까지를 고대로 상정하고 이를 화폐경제 시대, 삼국시대부터 당말오대까지를 자연경제로 비정하였다. 다시 송대부터 청대까지를 화폐경제 시대로 파악하였다. 이에 나아가 경제의 커다란 파동을 상정하여 고대는 호경기 시대, 중세는 불경기 시대, 근세는 호경기 시대이며, 근세가 될수록 경기변동의 간격은 짧아진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미야자키 이치사다, 조병현 역, 『중국통사』, 서커스, 2016 참조.

〈표 3〉 미야자키 이치사다의 중국사 시대구분과 경기변동

고대	~후한까지	화폐경제
중세	삼국시대~당말·오대	자연경제
근세	송대~청대	화폐경제

〈표 4〉 명말 이후 청대중기까지 경기변동에 관한 岸本美緒의 견해(출전 : 岸本美緒(1997), 192쪽 내용 변용)

제1기	16세기 ~ 1630년대	활황기
제2기	1640년대 ~ 1680년대 전반	해외무역 퇴조
제3기	1680 ~ 1750년대	해외무역 회복기 (林滿紅 : A기)
제4기	1750년대 이후	대외무역의 성장기 (林滿紅 : B기)

4. 黃國樞·王業鍵, 「청대 미가의 장기변동」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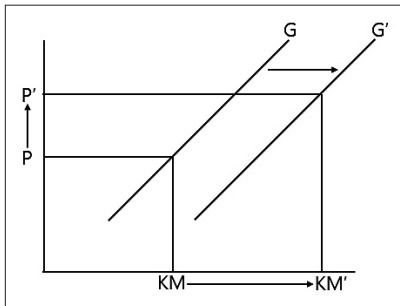
王業鍵은 1981년 黃國樞와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청대 미가 변동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사료 분석을 위주로 한 전통적인 역사학 방법론에 입각하였다면, 이 논문에서는 경제학 지식을 원용하여 분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논문은 청대 전체의 미가 변동을 다루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건륭연간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농산물 시장은 3급, 즉 ① 산지시장, ② 도매시장, ③ 소매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檔案 중에서는 가격이 과연 어떤 시장에서의 가격인지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에 따르면 당안 속의 가격 표시는 庫平兩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부피 단위는 ‘倉石’이었다고 한다. 糧政의 방면에서 조정과 각성 당국은 대부분 일상적인 보고를 정책 결정의 지침을 삼았다. 미가 보고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보고된 미가의 확실성은 크로스 체크되어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하고 있다.

청대 후기 미가의 장기 파도는 두 개의 커다란 파동(long wave)을 그렸다. ① 첫 번째 장기파동(1780-1850년대 초기)은 볼록한 모양(conv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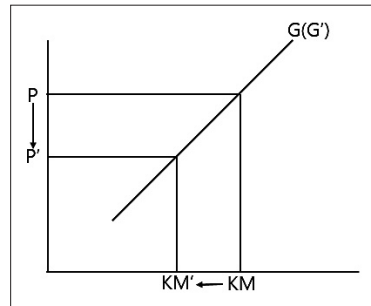
18) 黃國樞·王業鍵, 「清代糧價의長期變動」, 『經濟論文』 9-1, 1981.

을 이룬다. 즉 1780년 후기 미가는 상승하기 시작하여 1834년 전후에 고점(巔山)에 오르고 1850년대초에는 최저점에 도달하였다. ② 두 번째 장기 파동(1870-1910)은 오목한 모양(concave)을 이루었다. 즉 미가는 1870년대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1881-82년 최저점에 도달하였고 이후 점점 상승하였다. 1900년대 말에 최고점에 도달하였다. 1788년-90년대를 기준으로 하면 소주미가는 1834년까지 2배 상승하였다. 다만 이 이후 소주미가는 약60% 정도 하락하였고, 1853년 태평천국군이 남경을 점령하였을 때 97%까지 폭락하였다. 1860년대 이후는 점차 회복하여 소주미가는 140%가 되었고, 그 후 11, 12년 동안 3/1이 하락하였다. 1880년대 초기 미가 수준은 1780년대 후기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1881년부터 1910년 사이 미가는 전고점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1908년 미가 지수는 274가 되어 고점에 올랐다. 청조가 전복될 시기에 蘇州 미가는 1880년대 초기의 3배반 정도까지 상승하였다.

이 시기 중국미가 수준의 변동은 대략 3가지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 종축=미가, 횡축=화폐량, G=식량공급량, M=화폐 공급량으로 하였다. K=전체 화폐 공급량 가운데 식량구매를 위한 화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림 1>은 2개의 상승을 설명하고 있다. ① 1780년대부터 1830년대, ② 1880



<그림 1>



<그림 2>

년대부터 1910년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G =시장에서 식량공급, KM =유통된 화폐 가운데 식량구매에 사용된 부분, P =물가로 상정하였다. 이 시기에 서 시장의 증가된 식량공급은 G' , 다만 화폐의 공급증가(M)가 더욱 많아져서 미가는 P' 로 상승하였다. 반면 <그림 2>는 두 시기의 하락단계를 설명한 것이다. 즉 ① 1830년부터 1853년까지, ② 1870년부터 1880년대 초기까지를 말한다. 19세기 이 25년 동안 발생한 현저한 사실은 화폐수량의 축소였다. 동시에 시장에서 식량공급량 증가는 매우 적은 편이었다. 그 결과 미가 수준은 P 에서 P' 로 하락하였다. 1870년대의 상황은 식량생산의 증가가 화폐공급의 증가보다 많았고, 이로 인하여 미가의 하락을 초래하였다.

미가를 결정하는 변수(variables)에 관한 통계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몇 가지 관련 사실을 찾아서 위의 분석을 입증해보고자 한다. 18세기와 19세기 초기 중국경제의 확장은 현저한 것이었다. 청조 인구는 1억 5천만명에 불과하였으나, 1770년 2억 7천만명으로 증가하였고, 1850년 4억 여명을 초과하였다. 동시에 중국 경지면적은 1650년 6억여무였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9억 5천만여무까지 되었고 12억 천만여무까지 확장되었다. 무역액 역시 증가되어 예를 들면 18세기초 동남연해안에서 장강으로 수송되는 미곡은 약 1,600만석 내지 2,700만여석 사이였고, 그 후 3, 4천만여까지 확대되었다. 중국은 18세기부터 19세기초에 식량생산 역시 증가하여 시장의 식량공급 역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림 2>에서 G 는 G' 로 이동하였다.

18세기부터 19세기초까지 중국식량 및 시장이 식량공급은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화폐 공급이 확대되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청조 화폐는 크게 ① 은, ② 동전으로 이루어졌는데, 18세기 후기에는 私票(정부 허가 없이 자유롭게 발행되는 지폐)의 유통이 점점 더 확대되었다. 결과 청조 지폐는 사실상 은과 동전으로 이루어진 복본위 화폐 시스템에서 ① 은, ②

동전, ③ 私票로 이루어진 트로이카 구조로 전환되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16세기부터 19세기 초기까지 유입된 액수는 8억4천만 내지 9억 스페인 페소가 유입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떤 계기에 따르면 1700년부터 1830년까지 수입된 5억 페소가 유입되었다고도 하고, 최소한 1700년부터 1826년까지 2억 5천만 페소였다고 한다. 1643年 生員 蔣臣¹⁹⁾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당시 중국 存銀은 2억 5천만냥에 달했다고 한다(이는 3억 5천만 페소에 해당한다). 어떤 계산에 따르면 19세기초 중국의 은재고량은 약 10여억 페소라고 한다. 이 숫자를 신뢰할 수 있다면, 청대 200년 동안 중국 存銀 상승은 약 3배에 달한다.

은유통량에 대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지출이다. 18세기 후반의 몇 년을 제외하면 정부 수입은 크게 지출을 초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건륭연간(1735-95) 한 시기만 하더라도 3, 4천만냥에서 6천만냥 혹은 8천만냥 사이까지 증가하였다. 백련교의 난 등의 군사비나 河工 등의 지출이 크게 증대하여 국고의 은보유량은 크게 감소하였다. 1814년 겨우 1천 4백만냥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19세기 초기, 중국의 은유통량은 크게 증대하였다.

동전의 증가는 은보다 많은 것이다. 1711년부터 1740년까지 주조액은 30萬串부터 70만곳에 달하였다. 1820년까지 매년 주조액은 100萬串을 초과하였다. 어떤 시기는 130만, 140만 곳에 달하였다. 그 외에 18세기 말 이

19) 明末 蔣臣의 銀 추계량에 대해서는 寺田隆信, 「明末における銀の流通量について」, 『田村博士頌壽東洋史論叢』, 田村博士退官記念事業会, 1968 참조. 1931년 중국 재정전문가인 에드워드 칸은 당시 중국의 은보유량을 다음과 같이 추산하였다. ① 여러 가지 화폐 형태로 17억 온스, ② 갖가지 장식품의 형태로 8억 온스, 모두 25억 온스의 은재고량이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를 페소로 계산하면 약 28억3천4백만 페소가 된다. Kann, Eduard, "How Much Silver Is There in China?" *Chinese Economic Journal* 8, no. 4(April 1931). 이렇게 보면 명말 3억5천만 페소, 19세기초 10여억 페소, 20세기초에는 28억 페소까지 증가한 셈이다.

후 사주전이 나날이 성행하여, 사주전의 범람은 운남, 귀주, 사천, 호광 등을 비롯하여 장강 하류지역까지 광범위하였다. 이로 인하여 錢價는 나날이 하락하여, 1810년대를 제외하면 북경일대 은전비가는 1785년 985문이었고, 1785년에는 1,150문, 1805년 936문, 1814년 1,102문, 1835년에는 1,420문에 달하였다.

1830년대 시작된 미가 하락 현상은 중국이 은이 대량으로 유출되어 화폐공급이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아편밀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은이 유출된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추계에 따르면 1801년부터 1826년까지 중국에서 7,470만 폐소라고 한다. 다만 1827년부터 1849년 유출된 은은 1억 3,370만 폐소라고 한다. 은유통의 수축 시기에 동전의 질은 더욱 열악해졌다. 이와 같은 정황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통에서 회수하여 축적하여 구매력을 보존하였다. 당시 包世臣은 『齊民四術』 卷 2에서 “近世貴人富商多藏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은의 축적현상으로 인하여 은의 유통량이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유통속도 역시 저하되었다.

III. 경기변동에 관한 林滿紅와 岸本美緒의 논쟁

1. 林滿紅, 「세계경제와 중국농업」²⁰⁾

林滿紅이 1989년 발표한 이 논문은 汪輝祖(1730-1807)의 『病榻夢痕錄』

20) 林滿紅, 「世界經濟與近代中國農業—清人汪輝祖一段乾隆糧價記述之解析」,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編, 『近代中國農村經濟史論文集』,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89.

속의 물가 관련 사료²¹⁾를 소재로 하여, 기존의 물가연구를 종합하고 극복하여 청대 경제사를 새롭게 파악하려는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청대 건륭연간을 단일한 성격의 시기로 파악하여 왔지만, 林滿紅은 이를 전기와 후기로 각각 나누어 그 변동원인을 각각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서는 임만홍의 논의에 따라서 전기를 'A기', 후기를 'B기'로 표기하기로 한다.

임만홍은 왕휘조의 『병탐몽흔록』의 서술에 근거하여, A기는 여러 물가 가운데 미가만이 오로지 상승하였고, B기는 미가와 다른 물가들이 동시에 상승하였던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A기가 미가만이 상승했던 이유는 당시 소득이 충분치 않아 화폐를 오로지 최저 생계유지에 필요한 식량을 사는데만 사용하였기에 식량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한다. 반면 B기에는 생계유지를 위한 식량 이외에도 소비성 생산품의 구매력이 증가하였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A기 물가 상승의 중요 요소는 인구증가였고,²²⁾ B기의 경우, 화폐 증가가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A기는 인구 증가가 빠른 반면, B기에는 화폐가 급속도로 화폐가 증가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B기의 화폐증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B기에서 사용된 화폐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첫 번째, 이 시기에는 정부 허가 없이 자유롭게 발행되는 지폐인 私票가 널리 발행

21) 왕휘조의 『병탐몽흔록』에 대해서는 홍성화, 「18世紀 中國 江南地域의 貨幣와 物價 — 汪輝祖와 鄭光祖의 기록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30, 2015을 참조. 이 논문에서 필자는 청대 건륭년간 후기의 물가변동의 원인을 인구증가가 아니라 화폐 증가에서 찾았고, 화폐 가운데에서 특히 동전(制錢과 사주전)의 증가 때문이라고 파악하였다.

22) 全漢昇은 1965년에 발표한 논문 「乾隆十三年의 米貴問題」에서 건륭13년(1748) 전국적 米貴 현상을 분석한 뒤에, 당시 위정자들의 인식으로는 그 원인을 화폐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인구증가에 주목하였다고 한다. 이 점은 彭凱翔에서도 확인된다(「乾隆十三年의 米貴問題」, 51쪽, 93쪽 참조).

되었다. 두 번째 동전의 경우, 그 주조량이 크게 늘었다. 청대의 경우, 정부의 공식적인 발행기구는 모두 3종류로서 ① 戶部, ② 工部, ③ 포정사 관할 하에 있는 18국이나 각성 주전국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 밖에도 민간에는 사주전이 유통되었는데, 그 증가속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고 있다. 각성 주전국에서 주조한 동전은 1800년 경, 11억 5천량 100만문에 달한다. 북경 중앙조정(戶部和 工部)에서의 동전공급은 1742년 증가하여 1773년에 서야 비로소 감소되었다.

임만홍이 특히 물가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한 것은 은의 유입이었다. 중국 내륙에서 은이 생산되는 지역은 운남지역으로 명대의 경우, 약 34만

〈표 5〉 임만홍의 건륭년간 시기구분과 그 특징

시기 구분	A기	B기
경기	불황	호황
물가양상	미가만 상승	모든 물가 상승
변동요인	인구증가	화폐증가
소득	감소	증가

냥, 건륭연간의 경우 46만냥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해외로부터의 은유입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魏源 『聖武記』에서는 “은이 채굴되는 경우가 3, 40퍼센트이고, 외국선박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6, 70퍼센트이다(銀之出開采者十之三·四, 而來自番捕者十分六·七).”라고 하여, 채굴되는 경우와 외국선박을 통해서 들어오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 첫 번째는 중국 내지에서 생산되거나, 국경을 인접한 지역(미얀마와 베트남)으로부터 유입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는 유럽선을 통해서 유입되는 경우였다. 우선 순서대로 살펴보면, 미얀마 은광은 1766년부터 1769년까지 미얀마 전쟁으로 인하여 미얀마의 은 생산이 중지되기까지 매년 은 100만냥을 생산하였다. 베트남 은광은 1761년 중국인에 의해서 채굴되었고, 1774년 이후 매우 번성하였다. 베트남 기록에 따르면 그 생산량은 그 해 100만냥 정도였다.

외국 선박(番舶)을 통해서 유입된 외국은에 대해서 보면, 그 내원은 주

로 아메리카 대륙과 일본이었다. 아메리카 대륙은 명대 이래 중국에 유입되었지만, 명말청초 중국에 유입된 은은 일본산 은(銀)이 위주였다. 중국에 유입된 일본은의 액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만력29년(1601)부터 순치5년(1648), 일본은은 1년에 약 140만 폐소의 액수가 중국에 유입되었다. 순치5년부터 강희47년(1708)까지 86만 폐소로 축소되었다. 강희48년(1709)부터 건륭29년(1764)까지 2만폐소로 축소되었다. 건륭29년(1764) 이후 아주 보잘 것 없을 정도였고, 도리어 어떤 경우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흘러가기도 하였다.

아메리카산 은(銀)은 명나라 가정44년(1565), 스페인이 필리핀을 점령한 뒤에 갈레온 무역²³⁾을 통하여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그 유입액을 보면 명나라 멸망 전에 2,600만 폐소에 달하였다. 청의 입관 이후, 스페인 달러 유입이 증가하였다. 명이 멸망하기 이전에 유입된 2천 640만 폐소를 제외하더라도 스페인 달러는 주로 1644년 이후에 중국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세기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 세력의 쇠약에 따라서 18세기 이후에는 영국과 미국이 이를 대신하여 아메리카은이 유입되는 루트가 되었다. 임만홍은 팽신위의 연구에 근거하여 1781년-1790년 수입된 은의 수가 갑자기 증대하여, 1781년-90년까지 수입된 은은 1711-1720년 수입량의 3배에 달하였다고 하고 있다. 임만홍 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A기에는 은유입이 부족하고 B기에는 은유입이 충분히 이루어져 경제 호황을 가져왔다고 파악하는 점에 있다. 이를 위해서 A기에 은유입이 적었다는 사료를 계속 열거하고 있다.

향촌 교사인 黃印이 남긴 지방지 『錫金識小錄』²⁴⁾에서는 강희 중기부터 건륭3, 4년까지 은유통이 증가하였고, 건륭5, 6년 이후 은유통이 다시 감

23) 이에 대해서는 서성철, 『마닐라 갈레온 무역』, 산지니, 2017 참조.

24) 黃印, 『錫金識小錄』에 대해서는 森正夫, 「『錫金識小錄』の性格について」, 『森正夫明清史論集』 3卷, 汲古書院, 2006 참조.

소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錫金識小錄』 卷1, 「備參上」 서술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증시하고 있다.

畝中(無錫縣)에서 거래는 은과 동전을 병용한다. 그런데 예전에는 은을 사용하는 비율이 동전을 사용하는 것보다 많았다. 지금은 동전을 사용할 뿐 은을 사용하지 않는다. 康熙(年間) 중에 一兩 이상(의 거래)은 모두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分·釐라는 세부단위까지 이르러도 銀과 銅錢을 병용하였다. … 雍正연간에서도 여전히였다. … 乾隆5, 6년이 되자 은이 점점 적어지고 동전이 점차 많아졌다. 금일에 이르러서 모두 동전을 사용하게 되었고, 비록 교역이 100兩 이상에 이르러서도 대개 동전을 사용할 뿐 은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건륭초중기 보편적으로 화폐공급의 증가는 그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가추세였다면, 그 후에는 완만한 과정이었다. 유일한 공급 증가 화폐는 동전이였다. 건륭초 중기 주조액은 강희 雍正연간의 3배에 달하였고, 건륭 초중기 역시 강희 雍正연간의 3배에 달하였다.

임만홍은 B기의 은유입 증가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영국과의 무역 증가 자체이다. 1692년 영국은 청정부와 무역협정을 맺은 이후에, 중영무역이 개시되었다. 다만 1700년부터 1757년까지 대중국 무역액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1757년 일구통상(一口通商) 정책이 실시된 이후, 영국의 대중국 무역이 점차 증가하였고, 1764년부터 1784년까지 중국무역의 65.66%에 달하였으며, 1785년부터 1804년까지는 무려 86.25%에 달하였다. 영국이 18세기 하반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것이, 1784년 이후 중국무역의 확장에 키포인트 역할을 하였다. 두 번째는 세계적인 은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17세기 전반기에 세계 은생산은 증가추세였으나, 하반기에 감소 추세였다. 18세기 전반기는 점차 17세기전반기의 수준을 회복하였고, 18세기 하반기에는

신속히 증가하였다. 19세기 전반기에는 감소하였고, 19세기 하반기에는 다시 급증하였다. 이 추세는 중국의 은유출입의 변화 추세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1870년 이전에는 세계 각국이 은을 기준 통화로 하고 있었고, 은생산량의 변동이 직접적으로 세계화폐 공급의 증감에 영향을 주었다. 17세기 하반기, 19세기 상반기 은이 감산되었을 때, 기후는 모두 18세기 은이 증산되었을 때 비해서 열악해졌다. 또한 19세기 전반기 은 감산의 직접적인 요인은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독립운동이었다.²⁵⁾ 은의 증산과 감산 그 자

25) Man-houng Lin, *China Upside Down: Currency, Society, and Ideologies, 1808-1856*,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6, Chap. II. Opium The Culprits. 여기에서 林滿紅은 1800년부터 1850년까지 아편유입량과 은유출량에는 명백한 비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아편 유입량은 1850년대 이후 증가하였던 데 비하여, 1856년 이후 은(銀)은 중국으로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그는 아편으로 인해서 은의 대량 유출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연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19세기 전반 중국에서 은이 유출되는 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은 생산량이 감소하고 유럽시장에서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차와 비단의 수요가 정체 내지 감소한 것이 중국 무역 균형 역전의 원인이었으며, 19세기 전반 중국 은 유출의 원인이기도 하였다. 반면 19세기 중후반 대량의 은유입은 1829년대부터 56년까지 저조했던 차와 비단에 대한 서양측의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배경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은과 금생산에 변동이 있었다고 한다. 19세기초 시작된 라틴 아메리카에서 식민지 독립 운동과 나폴레옹 전쟁에 의해서, 특히 전 세계 은생산량의 83.9%를 점하였던 멕시코의 은생산이 정지되었고, 그 결과 1810년부터 1850년까지 금과 은의 생산은 1800년 무렵을 기준으로 해서 40% 정도까지 축소되었다. 1848년 캘리포니아의 금 채굴의 개시와 라틴 아메리카의 은생산 재개에 의해서 1860년대 생산은 회복되었고, 19세기말에는 1820년대의 100배를 초과하였다. 즉 중국에서는 1808년부터 1856년까지 은이 유출되었고, 1856년 이후 은이 유입되었는데, 이 경향은 세계 은 생산량의 추이와 명백히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岸本美緒 논평과 통계자료에 대한 비평은 Kishimoto Mio, "New Studies on Statecraft in Mid- and Late-Qing China: Qing Intellectual and Their Debates on Economic Poli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tudies*, 6-1, 2009 참조.

체와 그 영향은 중국 물품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구매력에 영향을 주었고, 또한 중국 은유출의 증감에 영향을 주었다. 중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이와 같은 연관은 명청시대 이래, 중국 역사가 지닌 하나의 독특한 특징이다.

일단 세계경제가 불황이면 중국 생산품이 적체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격도 하락한다. 이것은 연쇄적으로 농산물 가격 역시 하락을 가져온다. 해외 판매 농산물 역시 농가 부업으로 생산된다. 세계경제의 불황 하에서 농업 수입과 부업 소득 역시 감소하여 농민의 생활을 곤궁하게 만들었다. 자영농은 토지를 팔고 소작농이 되거나 雇農으로 전락하였다. 지주와 소작농 사이에는 정부 부담 세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지고, 정부 역시 세금을 징수하기 점점 어렵게 되었으며, 역시 도로, 치안, 교육, 구제 등의 민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농업생산력을 저하시키게 된다고 하고 있다. 즉 그의 견해에 따르면 해외무역은 은유입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중국 농업 생산에 중요한 자극이 되었다고 하고 있다.

2. 岸本美緒, 「임만홍 논고에 대한 평론」²⁶⁾

임만홍의 前稿인 ① 「세계경제와 중국농업」(여기에서는 「임만홍(1989)」으로 약칭)에 대해서 岸本美緒는 1997년 비판문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한 임만홍의 답변 역시 모두 같은 잡지인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28집에 나란히 발표되었다. 여기에서는 일단 岸本美緒의 비판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이에 대한 임만홍의 반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岸本은 「임만홍(1989)」의 취지인 청대 중국경제와 세계경제와의 연동을 긴

26) 岸本美緒, 「評林滿紅「世界經濟與近代中國農業-清人汪輝祖一段乾隆糧價記述之解析」一文」,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28, 1997.

밀하게 파악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일단 찬동을 표하면서도 임만홍의 주장을 과연 사료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A기가 평균소득이 감소하였던 어려운 시기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II장의 <표 4>에 岸本美緒의 제3기가 바로 임만홍이 말한 A기에 해당되고, 제4기가 바로 B기에 해당된다. 즉 岸本은 A기를 회복기로 파악하고 있으며, 반면 임만홍은 불황기로 파악하고 있다는 양자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는 임만홍의 논지에 대한 岸本の 견해를 요약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임만홍의 논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특히 A기에 [인구(P)↑ > 화폐(M)↑], 즉 미곡 가격 증가 속도가 통화량 증가보다 더 빨랐고, 원격지 무역의 성장은 완만하여 농촌시장²⁷⁾의 성장이 인구를 부양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결과 생계유지 물자가 특별히 비쌌고 미곡 품귀 현상(糧荒)을 야기하였으며, 당시 농촌시장이 얼마간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인용자) 설사 농민들이 열심히 일하여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식량부족 사태를 야기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岸本 역시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A기에서 일반인의 소득이 증대하고 그에 따라서 유효수요(有效需要)²⁸⁾가 증대했는가라는 점이다. 여기에 岸本은 『錫金識小錄』 등을 토대로 한 임만홍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고 있다.

岸本은 A기에서 평균소득이 감소했다는 설에 대한 반박 증거의 하나로써 청대 건륭초 강남지역에서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연구를 그 사례로

27) 원문은 '지방경제(地方經濟)'인데 도시경제(城市經濟)와의 대립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기에서는 그 뜻을 살리기 위해 모두 농촌시장으로 옮겼다.

28) 유효수요(有效需要, Effective demand)는 단순한 욕망과는 달리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수요를 뜻한다.

들고 있다. 岸本은 “최근에 들으니 (미곡 생산지역에서) 민간전당업에서는 미곡을 거두어 들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 이자가 매우 낮아서 손님이 많아서 (전당포에) 쌓여 있는 미곡이 매우 많다(近聞民間典當竟有收當穀米一事, 子息甚輕, 招來甚衆, 固積甚多).”는 사료를 인용하면서 이자율이 낮았으며, 이는 당시 강남 농민들이 주변에 화폐가 풍부했다는 반증이라고 한다. 즉 ① 화폐공급 풍부 ⇒ ② 이자율 저하 ⇒ ③ 소득 인상이라는 상당히 케인즈 경제학에 가까운 논리 구조가 아닐까 생각된다.

임만홍이 말하는 화폐량, 인구, 농업생산량의 동향은 왕휘초의 “예전에는 오로지 쌀값만 비쌌다(往年專貴在米)”는 구절에 상당 부분 근거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A기에서는 [인구(P)↑ > 화폐(M)↑ > 농업생산량(Ag)↑]이라는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즉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화폐증가율은 그 다음이고 농업생산량 증가는 가장 적다고 파악하고 있다.²⁹⁾ 이는 B기 [화폐(M)↑ > 농업생산량(Ag)↑ > 인구(P)↑]라는 현상과 대비되는 것이다. 또한 岸本은 1740년부터 50년 사이에 유럽선을 통한 중국으로의 은유입이 감소하였다는 임만홍의 설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³⁰⁾ 그리고 무역액의 증가와 은유입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29) 다음과 같은 사료는 임만홍의 논지와 상당히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楊錫紱, 「陳明米貴之由疏」, 『清經世文編』卷39, 戶政14, 倉儲上 “雍正年間, 則需四五錢, 無複二三錢之價, 今則必需五六錢, 無複三四錢之價, 蓋戶口多, 則需穀亦多, 雖數十年荒土, 未嘗不加墾闢, 然至今日而無可墾之荒者多矣, 則戶口繁滋, 足以致米穀之價, 逐漸加增, 勢必然也.”

30) 岸本은 자신의 저서 『清代中國の物價と經濟變動』, 187쪽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임만홍은 모스의 데이터에 의거한 彭信威의 표를 이용하여, 이 시기 광주를 통한 은유입이 감소되었다는 것, 그 결과 중국경제가 불황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다른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자면, 1740년부터 50년까지 오히려 광동무역의 발전기였고, 은유입도 증대되었다고 추론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서 Dermingy의 1964년 연구를 근거로 廣州에 온 유럽선박의 평균 수치가 증가하는 표를 제시하고 있다(『清代中國の物價と經濟變動』, 187-188쪽 참조).

즉 무역이 증가하더라도 중국측에게 불리한 적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유입에 관한 임만홍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임만홍(1989)」, 316쪽에서 1752-1800년까지 105만 달러를 수입하여, 연평균 2만 폐소를 수입하였다는 余捷瓊의 통계를 인용한 뒤에, 「임만홍(1989)」, 303쪽에서는 1616-1625년에 중국에 유입된 일본은(日本銀)은 3,639,210폐소라고 하고, 1752년부터 1800년까지 은유입량은 도리어 1616-1625년까지의 유입량에 못 미친다고 하였다. 「임만홍(1989)」의 기본논지는 18세기 인구 증가율은 1.5배이고, 은의 증가는 그에 못 미친다고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로 인하여 [인구(P)↑ > 화폐(M)↑]의 국면이 조성되는 셈이다. 반면 岸本은 「임만홍(1989)」 가운데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1775년의 전환점, 즉 [인구(P)↑ > 화폐(M)↑]에서 [화폐(M)↑ > 인구(P)↑]로 바꾸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임만홍(1989)」에서 제시된 수치로 본다면 1775년의 전환점을 논증할 수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과 미얀마의 은유입에 대해서 두 연구자의 의견은 첨예하게

〈표 6〉 미얀마·베트남 은의 유입 시기에 대한 견해

임만홍	B기 (건륭 후기)
岸本美緒	A기 (건륭 초중기)

갈리고 있다. 岸本은 和田博徳의 연구를 인용하여, 베트남, 미얀마 은(銀)이 중국으로 가장 많이 유입된 시기는 B기가 아니라 A기였다고 하고 있다. 임만홍과 岸本 사이의 의견대립 가운데 하나는 임만홍은 A기에 은부족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것이 불황으로 이어졌다고 하지만, 반면 岸本은 A기에 은유입과 경제 모두 회복기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표 6〉 참조).³¹⁾

岸本은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종합하고 있다. A기가 “다만 생계

유지를 위한 물자(즉 미곡-인용자)만이 올랐던 시기”라고 할 수 없다. ① 현재에서 사료에 기반하여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모든 물가가 상승하였던 시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② 인구, 화폐량, 농업생산량 모두 상승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의 상승량이 가장 두드러졌을까? 岸本の 견해로서는 현재로서는 사료를 통하여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 또한 1775년이 A기에서 B기로 이행하는 그 전환점이 되었다는 임만홍의 가설 역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방법이 없으며, A기에 식량 부족현상이 일어났던 것은 확실한데, 이와 같은 ‘糧荒’은 호경기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고 있다. “A기는 (식량-인용자) 공급 관계가 강렬하게 긴장성이 높은 시기였고, B기는 이러한 긴장이 조금씩 완화되는 시기”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만약 “A기는 불황기이고, B기는 호경기”라고 일도양단해서 인식할 수는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岸本은 A기와 B기를 연

<표 7> A기에 관한 林滿紅과 岸本美緒의 관점 차이

	林滿紅	岸本美緒
변동 원인	인구증가 속도 > 화폐증가 속도	화폐증가 속도 > 농업성장 > 인구증가
물가 상승 양태	미가 가격 상승 > 일반 물자 가격상승	모든 물가가 상승
소득 변동	감소	증가
해외 은유입	격감	증가
경기 변동	불황	호황(회복기)
도광연간 은유입 축소 이유	전세계적인 은생산량 축소	서양과의 무역 축소

31) 何柄楙는 18세기 전반의 인구증가는 생활수준의 향상이 원인이었다고 하고, 그 사례 가운데 하나로서 요재지의 저자 蒲松齡(1640-1715)의 사례를 들고 있다 (『중국의 인구』, 1994, 322쪽). 이는 강희년간 말기가 어느 정도는 경기회복기이자 호황기였다는 岸本美緒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두 시기 모두 호황기로 파악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리고 岸本은 인구증가로서 미가 상승을 설명하는 방법은 타당성이 없다고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 변동의 원인은 화폐라고 단언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A기에 관한 두 연구자의 관점 차이를 간략히 표로 정리해 보았다(〈표 7〉).

3. 林滿紅 「岸本美緒의 논평에 대한 답변」³²⁾

임만홍은 이 논문에서 岸本의 비판(여기에서는 「岸本美緒(1997)」로 약칭)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지적받은 몇몇 작은 오류를 수정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기존의 설을 고수하면서도 청대 A기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좀 더 정교하게 제시하였다(〈표 8〉 참조).

〈표 8〉 A기와 B기에 대한 임만홍의 견해

<p>A기 (1736~1775)</p>	<p>인구성장율(P) ↑ > 화폐(M) ↑ > 농업(Ag) ↑ ⇒ 민생 빈곤, 화폐수요 증대(OS) ↑ < 화폐공급(SS) ↑ < 동전공급(SC) ↑ < 동전수요 증가(DC) ↑ ⇒ 錢貴 (장거리무역과 도시경제의 성장 < 지방경제)</p>
<p>B기 (1776~1795)</p>	<p>화폐(M) ↑ > 농업(Ag) ↑ > 人口(P) ↑ ⇒ 민생 부유, 기근 비교적 발생 적어짐. 은수요 증가(OS) ↑ > 은 공급(SS) ↑ > 동전공급(SC) ↑ > 동전수요 ↑ (DC) ⇒ 銀貴(원격지 무역, 도시경제 비교적 발달)</p>

임만홍은 이미 자신의 前稿인 「임만홍(1989)」, 304쪽, 각주 39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朱叔權이나 汪輝祖, 『病榻夢痕錄』, 鄭光祖, 『一班錄』, 黃印,

32) 林滿紅, 「與岸本教授論清乾隆年間的經濟」,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28, 1997.

『錫金識小錄』 등의 서술에 입각하여, 건륭초년에 은이 부족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한다. 또한 정부 지출에서 건륭초 호부의 存銀量은 적었지만, 건륭 후기 戶部 存銀量이 많아졌던 전환점은 경제적 변화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黃弼, 『錫金識小錄』 卷1 「備參上」, 「風俗變遷」 “(城居한 자는) 가난해 질 수밖에 없다. … 근년에 이르러서 쌀, 쌀감, 포백 등의 식료품 물가가 이전보다 3배나 올랐고, 더하여 화려한 의복이나 미식의 풍조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또한 (城居한 자는)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적고, 도박음주나 유흥으로 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가난해 질 수밖에 없다. 향민들의 소박함은 예전에는 미칠 수 없지만, 경작의 근면함 역시 예전 사람들이 미칠 바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료에 입각하여 A기에 도시경제는 호황을 누렸지만 농촌경제는 불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같은 黃弼, 『錫金識小錄』 卷1에서는 “동전의 가치는 옹정연간에 두 세배가 되었다.” 또한 “부자들의 일년 수입은 예전에 3년치 수입에 해당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하루치 식사는 이전의 3일치 식사에 해당한다.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빈민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된다. 가난한 자들은 100명이라면 부자는 한 명 정도이니, (사회가) 불화하는 계기가 잠복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임만홍은 이를 건륭초에 평균소득이 감소했다는 자신의 설에 대한 유력한 근거로 삼고 있다.

앞서 岸本은 농업성장 및 토지가격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임만홍(1989)」, 300쪽에서 A기는 농업성장기, 즉 농업생산이 증가한 시기 ([농업(Ag)↑])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농업성장이 인구성장을 따라잡을 수 없었을 뿐이었다. 「임만홍(1989)」, 325쪽에서 A기의 농업위기로 인구를 부양할 수 없었다고 표현한 것은 타당하다. 岸本の 저서인 『清代中國の物價と經濟變動』, 158쪽에서 이 시기 토지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임만홍(1989)」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한다. 또

한 岸本の『清代中國の物價と經濟變動』에서 인용한 嘉慶年間 周天爵이 말하는 “기근의 해에 토지가격은 반드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인구(P)↑ > 농업(Ag)↑ > 화폐(M)↑], 즉 [인구성장율 > 농업성장율 > 화폐성장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격은 하락하였던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토지를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만큼의 화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다만 「임만홍(1989)」에서 말하는 A기는 [인구(P)↑ > 화폐(M)↑ > 농업(Ag)↑]라고 할 수 있는데, 즉 농산품과 화폐가 인구성장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또한 화폐증가율이 농업성장율보다 훨씬 더 컸던 정황, 즉 「화폐(M)↑ > 농업(Ag)↑」으로 인하여 경지 가격은 상승하였다. 은의 공급이 완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기에서 인구와 동전이 증가하여 농촌시장은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동전이 단거리 교역과 소액거래를 위주로 하는 농촌시장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錫金識小錄』의 서술에 의거하면 건륭초년 강소성 지역 농촌에서 농민들의 토지 구입이 성행한 반면, 도시는 빈곤하였다는 사실에서도 도시와 농촌과의 관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한다. 임만홍에 따르면 은은 주로 원격지 무역과 도시경제를 지탱해 줬다고 한다. A기에서 [은수요(OS)↑ < 은공급(SS)↑ < 동전공급(SC)↑ < 동전수요(DC)↑]라는 논리 속에서 도시경제의 발전과 ‘은천전귀’ 현상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A기는 원격지무역의 성장이 완만하기 때문에 농촌시장 쪽이 발달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금이 비교적 부족하게 된다. 때문에 농촌시장은 성장하더라도 인구를 부양하기에는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 반면 B기에는 장기무역의 성장으로 인한 자극을 받아서 순조롭게 [은수요(DS)↑ > 은공급(SS)↑ > 동전공급(SC)↑ > 동전수요(DC)]라는 논리에 따라서 ‘銀貴錢賤’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미 「임만홍(1989)」, 292쪽에서 “건륭초중기(A기)는 화폐 부족으로 인하여 상업화 발전강도와 저가 화폐에 대한 수요가 낮아졌으나, 건륭 후기

(=B기) 화폐증가는 고액화폐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다”고 추론한 바 있다. 임만홍은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칼 마르크스 역시 “전체 상업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영세 교역을 위한 저가 귀금속에 대한 수요는 도리어 증가하지만, 높은 귀금속의 가격은 낮아지며, 저가 귀금속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으로 비교적 발전하는 시기에는 귀금속 화폐에 대한 수요가 저가 귀금속에 대한 증가보다 더 빠르다”고 지적하였다고 한다.

「岸本美緒(1997)」에서는 「임만홍(1989)」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다. “만약 黃印이 [동전 ↓ < 은 ↓]이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전 가격의 상승은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반대로 동전 공급의 하락폭이 은공급의 하락폭보다 컸다([동전 ↓ > 은 ↓])이라는 논의는 ‘임만홍의 논의와 상반되는 것 아닐까?’라고 하고 있다. 사실상 임만홍(1989)」에서 말한 것은 [동전 ↓ > 은 ↓]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공급(SS) ↑ < 동전공급(SC) ↑]이라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경기(business cycle)’는 고가 금속과 저가 금속 사이에 서로 다른 수요를 낳는다”는 개념이다. 또한 [은수요(DS) ↑ < 은공급(SS) ↑ < 동전공급(SC) ↑ < 동전수요(DC) ↑]라는 라는 구조는 ‘錢貴’ 현상을 낳게 되었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원격지 교역과 도시경제가 성장하기 보다는 농촌시장 쪽이 발전하게 된다고 임만홍은 주장하고 있다.

임만홍의 의견을 따르는 한, 岸本の 논의 구조는 단순하게 은과 동전을 같은 속성을 파악하여 양자를 합친 공급량만을 중시하고 있는 셈이다. 임만홍의 견해에 따르자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진다면, 귀금속에 대한 수요는 낮아질 수 있다. 「岸本美緒(1997)」에서 말하는 A기에 이자가 낮은 현상도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가 안 좋을 때에 저가 금속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현상을 이해한다면 「岸本美緒(1997)」에서 말하는 “동전이 많이 사용되면서도 동전의 가격이 높아지

〈표 9〉 1850년 이전 중국 은유입 추계(출전: 「임만홍(1997)」, 240쪽), 단위: 백만페소

지역		공급량
베트남과 미얀마(1740-1775)		27.20
중국 국내 생산	명 멸망 이전의 은생산량	52.31
	1662-1795	912.00
	1811-1845	8.13
	합계	151.40
일본(1560-1764)		1474.00
서양	美國(1787-1833)	905.00
	라틴 아메리카(1571-1821)	1506.00
	영국 및 유럽국가	1587.00
	합계	398.00
총계		723.60

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납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임만홍(1989)」, 298쪽에서 지적하였듯이 A기에는 미가가 상승한 정황은 찾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식량이 장기간에 인구의 증가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는 자신 논리와 부합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A期기의 미가에 대한 왕휘조의 서술로서도 증명이 된다고 한다. 때문에 A기에 인구증가가 농업 생산량분보다 컸지만,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다만 A기에는 화폐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岸本美緒(1997)」에서는 건륭말기 해외무역의 흑자가 축소되었다고 하여 이전까지 증가했던 화폐 역시 감소하였다고 파악하고 있다. 岸本은 자신의 저서인 『清代中國の物價と經濟變動』에서 제기하였던 화폐 총공급량은 화폐의 실제공급량과 화폐유통속도의 누적이라는 개념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임만홍은 비판하고 있다. 「임만홍(1989)」에서 인용한 鄭光祖 등이 관찰한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番銀 유통의 확대 및 은을 지불준비

금으로 보유하였지만, 지불준비금보다 초과해서 B기에 銀票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화폐유통속도 및 화폐공급량은 증가되었다. 임만홍의 새로운 논의 구조를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다(〈표 10〉). 이하에서는 이들 두 연구자 이후의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표 10〉 林滿紅의 논의 구조

A기 (1736-1775)	B기 (1776-1795)
빠른 인구 증가	완만한 인구 증가
일본은 격감, 아메리카산은 완만 증가	아메리카산은 격증(激增)
은유입 격감 ⇒ 화폐공급 완만 ⇒ 錢貴	은유입 증가 ⇒ 화폐공급 증대 ⇒ 銀貴
화폐소득 감소 ⇒ 수입 감소	화폐소득 증대 ⇒ 수입 증대
원격지 무역 감소	원격지 무역 활발 ⇒ 은 수요 증대 ⇒ 銀貴
인구증가 속도 > 화폐증가 속도	화폐증가 속도 > 농업성장 > 인구증가
인구증가 속도 > 농업 생산량 ⇒ 기근 발생	해외시장 수요 제고 ⇒ 농업생산 증가 ⇒ 기근 감소
미가 가격 상승 > 일반 물자 가격상승	일반 물자 가격상승 > 미가 가격 상승
경제 불황	경제 호황

IV. 陳春聲, 黒田明伸, 彭凱翔, 폰 글란의 연구

1. 陳春聲, 『시장 메커니즘과 사회변천-18세기 광둥미가 분석』³³⁾

陳春聲은 중국제1역사당안관과 고궁박물관 등에 소장된 몇 천건의 「糧價清單」³⁴⁾과 문집, 지방지 등의 관련 서술을 결합하여 18세기 광둥물가 변동의 장기추세를 분석하였다. 18세기 광둥에서도 확실히 완만한 물가상승

추세가 나타났는데, 10년간 이 지역의 미가는 약 70% 정도 상승하였다고 한다. 예를 들면 강희46년(1707) 평균 미가가 0.81량이었는데, 가경5년에는 1.376량이 되었다고 한다. 반면 같은 시기 광동 인구는 약 5.7%-11%가 증가하여 연평균 6.8% 증가하였는데, 미가 상승폭은 인구증가 폭보다 낮았다. 또한 그는 청대 인구는 쑥 상승추세였지만, 도광연간 중엽 이후 전국적으로 미가는 하락하였기 때문에, 인구 증가만으로는 미가 상승을 전부 설명할 수 없다고 하고 여기에 화폐유통을 또 다른 요인으로 추가하고 있다. 陳春聲은 광동지역에서 은과 동전유통이 줄곧 증가하였는데, 건륭연간 이후 그 상승속도가 빨라져서 앞서 서술한 미가 증가폭과 일치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인구와 화폐 어느 쪽이 중요하다고까지는 밝히지 않으나 대체로 화폐를 더욱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 黒田明伸, 『중화제국의 구조와 세계경제』

黒田明伸(구로다 아키노부)은 1983년부터 발표한 청말과 근대 중국의 화폐사에 관한 일련의 논문을 모아서 1994년 『中華帝國の構造と世界經濟』³⁵⁾로 간행하였다. 국내에 번역 소개된 『화폐시스템의 세계사』³⁶⁾에서

33) 陳春聲, 『市場機制與社會變遷-18世紀廣東米價分析』,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0(原刊, 1992).

34) 청대 미가 보고제도와 糧價清單에 대해서는 劉崑, 「清代糧價奏摺制度淺議」, 『清史研究通訊』 1984-3기; 陳金陵, 「清朝的糧價奏報與其盛衰」, 『中國社會經濟史研究』 1985-3기; 王道瑞, 「清代糧價奏報制度的確立及其作用」, 『歷史檔案』 1987-4기 참조.

35) 黒田明伸, 『中華帝國の構造と世界經濟』, 名古屋大學出版會, 1994. 이에 관한 내용 소개와 비평으로서 岸本美緒, 「『中華帝國の構造と世界經濟』黒田明伸」, 『名古屋大學東洋史研究報告』 19, 1995; 「清代中國の經世論における貨幣と社會」, 歷史學研究會編, 『越境する貨幣』, 青木書店, 1999 참조.

36) 구로다 아키노부, 정혜중 역, 『화폐시스템의 세계사-비대칭성』을 읽다, 논형, 2005.

알 수 있듯이 그의 연구방법은 화폐 유통량이라든가 해외로부터의 은 유입량이 많고

〈표 11〉 黒田明伸의 화폐 구분

	사용되는 장소	기능
은	상급시장	지역간 결제통화
동전	하급시장	현지통화

적은가를 중요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화폐를 둘러싼 사회구조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그가 중시하였던 것은 속성에 따른 화폐 종류의 구분이었다. 청대 화폐는 그 기능과 유통범위에 의해 크게 2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구성단위인 ‘지역’을 유통하는 통화이고, ‘현지통화’라고 한다. 현지통화는 주로 동전을 가리키고 있다. 동전은 지역 내부에 유통되는 화폐로서 날개로 세어서 가치를 재는 계수화폐이고 농산물의 계절적 수요 변동에 따라서, 동전 역시 계절적으로 그 수요에 대한 진폭이 컸다고 한다. 동전은 같은 가치에 비해서 비교적 중량이 큰 화폐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동이 제한이 있고, 또한 단맥(短陌) 등의 관행 때문에 지역간의 호환성을 결여하고 있다. ② 지역과 지역 사이에 유통되는 통화를 ‘지역간 결제통화’이며, 구체적으로는 은(銀)을 지칭하고 있다. 은은 대규모 결제나 세금납부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³⁷⁾

위와 같은 전제하에서 그는 건륭연간 초기의 물가변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건륭연간 초기에는 米貴와 錢貴라고 하는 상반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는데, 그 원인을 常平倉을 비롯한 정부의 곡물비축 정책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즉 청조는 상평창 등 곡물 비축정책을 추진한 결과 다량의 미곡을 수매하게 되었고, 미곡을 수매하기 위해서 동전에 대한 수요 역시 증대하게 되었다. 즉 米貴와 錢貴라고

37) 黒田明伸, 『中華帝國の構造と世界經濟』, 名古屋大學出版會, 1994, 1장 「銀錢錢二貨制」.

하는 상반된 현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건륭연간 초기에 미곡 가격만 높았던 현상은 바로 상평창의 곡물 비축정책을 추진한 탓이었다.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하여 淸朝는 대량으로 제전을 공급하게 되었고, 그 결과 銀은 '지역간 결제'만을 담당하게 되었고, 동전은 '현지통화'로서 기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⁸⁾

여기에 나가서 앞서 계속 인용된 『錫金識小錄』의 구절을 인용하여, 강남지방에는 1730년 무렵에는 보통 거래에 은과 동전이 절반씩 사용되었고, 또 1740년경에는 은보다 동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1740년(건륭5년)이라는 시기는 바로 강남지방에서 대량으로 동전주조가 시작된 해였다. 즉 대량으로 동전이 공급되면, 당연히 동전의 가치가 하락해야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은과 동전의 비가는 은 1냥에 동전 840문이었던 것이 은 1냥에 700문으로 상승하였으며 이후도 계속 이 비율이 표준 시세가 되었다. 즉, 공급이 증가하면서 동전의 시세가 상승하였고 또, 사용 범위도 확대되는 일견 기묘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은과 동전이 서로 같은 속성을 지녔다고 간주한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그의 논의에 따르면 은과 동전은 서로 기능이 달랐고 각자 독자적인 환산비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³⁹⁾

그 뒤의 저서인 『화폐시스템의 세계사』에서는 위의 논의를 더욱 보강·확대하여, 청조 중국뿐만 아니라 동시기 인도 무굴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발견하여 이를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논하고 있다. 그의 논

38) 黒田明伸, 『中華帝國の構造と世界經濟』, 名古屋大學出版會, 1994, 3장 「穀賤賤から米貴へ」. 일본학계는 은과 동전을 같은 화폐로 파악하지 않고 각각 그 사용처가 다른 것(銀建, 銅建)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浜口福壽의 선구적 연구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明代の米價表示法と銀の流通-明代貨幣史覺書』 2, 新潟県立新潟中央高等学校, 『研究年報』 15, 1968).

39) 黒田明伸, 『中華帝國の構造と世界經濟』, 名古屋大學出版會, 1994, 3장 「穀賤賤から米貴へ」.

의에 따르자면, 어떤 물건을 A와 B 사이에 교환할 때, 사용되는 화폐가 단수일 때는 대칭적인 교환이 이루어지지만, 복수의 화폐, 즉 은과 동전을 사용하며, 특히 두 화폐의 환산비율이 통일되지 않고 교역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비율을 갖게 되면, 그 교환은 '非대칭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⁴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청대처럼 여러 가지의 화폐가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화폐수량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즉 설령 화폐 공급이 많아지더라도 그만큼 물가 상승의 압력을 덜 받게 된다.⁴¹⁾

그는 이러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서 본고의 주제인 청대 건륭연간의 물가를 언급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1년 동안 생산된 1,000만 페소의 은(銀) 가운데 300만 페소 정도가 중국과 무굴제국으로 유입되었다면, 두 제국에서는 뚜렷한 물가상승 현상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17세기와 18세기에 은이 대량으로 흡수된 정도에 비하면 물가가 상승한 편은 아니었다.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이 없이도 은을 계속 흡수할 수 있었던 것은 청대 중국과 인도 무굴제국 모두 시장 자체가 복수의 화폐가 병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균질적으로 통일된 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화폐를 개인이 축적할 필요도 줄어들지만, 복수의 화폐가 병존하는 사회 시스템하에서는 개개의 화폐를 모두 축적해 놓아야 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화폐가 축적되기 쉬우며, 그렇기 때문에 은이 다량으로 공급되어도 그만큼 물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⁴²⁾

40) 구로다 아키노부, 정혜중 역, 2005, 2쪽.

41) 구로다 아키노부, 정혜중 역, 2005, 3-4쪽.

42) 구로다 아키노부, 정혜중 역, 2005, 94-99쪽. 반면 岸本美緒의 경우, 명말 단계에서는 유입된 은은 복변으로 흘러가거나 일부 대도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는 도리어 불황을 가져 왔다고 파악하고 있다. 반면 청대 16-18세기에서 은이 직접 중국사회로 유입되었고, 단순히 재화를 교역할 수단의 증가일 뿐만 아니라, 아울러 대규모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를 창출하여 경제 활황을 가져 왔다고 파악하고 있다. 岸本美緒, 『清代中國の物價と經濟變動』, 232-234쪽; 기시

나아가 청대 중국의 시장구조와 근세 일본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근세 중국은 지역간의 교역이 일반적으로 쌍무적이고, 移出 자체가 같은 가치를 가진 移入과의 상호 보증하에서 성립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민간 어음 송금과 정부 자금의 송금이 서로 아무런 관련을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는 ‘그물망 모습’으로 조직된 사회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와 비교해 볼 때, 근세 일본은 현지통화를 번(藩)이라고 하는 행정 단위로 통합시켰기 때문에, 지역간의 교역 역시 통일 화폐를 결제수단으로 하였으며, 어음 송금망과 官金 송금이 상호 결합되어 안정된 구조를 갖는 사회였다. 따라서 금융이 상위의 도시로 집중되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조직되었던 사회였다고 비교하고 있다.⁴³⁾

3. 彭凱翔, 『청대 이래 미가 - 역사학적 해석과 재해석』⁴⁴⁾

彭凱翔은 청대 이래 1949년 신중국 성립시기까지의 미가 문제에 대해서 자신 나름대로 정리하였다. 리처드 폰 글란은 자신의 저서에서 팽개상의 연구에 대해서 “청나라 물가의 역사에 관한 한 가장 우수한 연구 성과” (폰 글란, 2019, 581쪽)라고 상찬하고 있다. 팽개상은 姜濤와 曹樹基의 연구에 근거하여 17세기말과 18세기초에 청대 인구는 가장 신속하게 증가하였지만, 건륭연간 후기에는 인구증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다만 청대 중국의 인구 통계는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능하지만, 화폐 유통량에 대해서 신뢰도 높은 자료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55쪽). 나아가 그는 청대 화폐사에서 특히 세계경제와의 연관성의 상징으로 증시 되어 왔던 은(銀)에 못지않게 동전이 중요하다고 하고, 건륭연간 매년 200

모토 미오, 노영구 역, 『동아시아의 「근대」』, 와이즈플랜, 2018, 33-34쪽 참조.

43) 黒田明伸, 『中華帝國の構造と世界經濟』, 名古屋大學出版會, 1994, 139쪽.

44) 彭凱翔, 『清代以來的糧價: 歷史學的解釋與再解釋』, 上海人民出版社, 2006.

여萬串을 주조하였는데, 그 가치는 유입된 은의 가치와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반면 사주전의 주조량은 현재까지로는 추계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다만 대략적인 추계를 보면 화폐증가와 미가 상승의 속도를 보면 결코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미가의 상승 폭은 18세기 중기 이후 하락한 반면, 화폐규모는 이 시기에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인구와 미가의 증가 폭은 대체로 일치한다고 한다(59쪽). 앞서 살펴본 임만홍이 제시한 A기와 B기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도 화폐와 미가 변동에 시간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王業鍵이나 吳承明이 지적하듯이, 팽개상 역시 단순한 인구증가라는 요소 이외에도 시장화, 城鎮化 등이 화폐 유통 속도를 상승시켰고, 통화 유통량을 팽창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18세기 초에 화폐 공급량 증가는 물가에 대한 영향력이 비교적 컸으나, 화폐 보유량은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도리어 화폐를 축적하려는 움직임이나 토지구매 혹은 장식용 등으로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물가에 대한 영향력은 비교적 약해졌다고 파악하고 있다(63쪽). 이와 아울러서 19세기 초 화폐 공급의 확대에 의한 이자율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고 있다.

彭凱翔의 의견에 따르면 18세기 전체로 미가 추세가 U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은전비가의 변동 모습 역시 같은 U자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한다(84쪽). 은전비와 미가의 관계를 계속 암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상관성이 있는지까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4. 폰 글란, 『폰 글란의 중국경제사』

리처드 폰 글란은 명말청초기 해외무역과 화폐경제를 다룬 『부의 원천 : 1000-1700 중국의 화폐와 통화정책』⁴⁵⁾을 내놓은 뒤 중국경제 통사를 내놓았는데, 『폰 글란의 중국사』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다.⁴⁶⁾ 여기에서

청대 미가 변동과 해외무역에 관한 부분만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에 따르면 18세기 경기 호황은 인구와 농업 생산량의 점진적인 성장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상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화폐 공급이 상당히 증가한 덕분이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은 유입은 최고치에 비해서 줄었지만, 동전⁴⁷⁾ 주조량은 17세기 말에 이르러서 거의 10배로 증가했다. 이러한 동전 주조량을 뒷받침한 것은 운남의 구리 생산이었는데, 1738-1810년 연평균 6,000톤을 생산하였고, 가장 많이 생산한 1764년에는 9,000톤에 이르렀다. 1740-1785년 생산된 동전의 양은 은량으로 환산하면 125톤에 달했다고 하는데(568쪽), 이 수치는 연평균을 말하는 듯하다. 반면 은 수입량은 연평균 50톤이었다. 한편 강남지방에서는 18세기 중엽 표준화폐가 은에서 동전으로 바뀌었다. 1730년-1858년 식량 공급이 부족했던 강남과 광둥에서는 특히 물가가 급격히 상승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상승률이 둔화되었고, 1790년대에는 거꾸로 하락하기도 하였다. 1780년 이후 은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한다. 아마도 錢貴 현상을 달리 표현하는 듯하다. 그는 결론적으로 앞서 彭凱翔의 연구에 찬동을 표하면서, 18세기 물가의 인플레이션은 화폐 총공급량의 급격한 확대 때문이었을 뿐, 인구 증가에서 비롯한 문제는 아니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581쪽).

45) von Glahn, Richard., *Fountain of Fortune: Money and Monetary Policy in China, 1000-170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46) 리처드 폰 글란, 류형식 역, 『폰 글란의 중국경제사』, 소와당, 2019(Von Glahn, Richard., *The Economic History of China : From Antiquity to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47) 청대 동전의 일반적인 무게는 1錢(약 3.7그램)으로 그 가운데 구리와 납(鉛)의 비율이 6:4정도인데 그렇게 보면 동전 1매의 구리함량은 2그램 납짓이 된다. 주조 비용과 운송비용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1톤의 구리로 약 50만냥을 주조할 수 있는 셈이다.

이른바 ‘도광불황’에 대해서도 그의 견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이에 중국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물가와 실질임금이 정체하거나 하락했다. 그는 앞서 본고 각주 25에서 소개했던 임만홍의 새로운 설, 즉 19세기 초 중국 은유출 현상의 원인은 아편무역보다는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은생산 감소 때문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지지하기 어려우며,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640쪽). 그 근거로서 멕시코 은화의 주조량이 줄었지만 매년 1,000만 폐소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중국의 차와 비단에 대한 유럽 시장에서의 수요 감소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1830년대 초에는 중국의 차와 비단 수출이 유례없는 호황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그는 18세기 전반 중국에서 은유입이 부족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동전의 가치 하락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서는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동전 품질의 저하, 두 번째는 錢票(=私票)라는 어음의 발달을 들고 있다. 따라서 19세기초 디플레이션은 인구 추세나 은 수입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중국 내부의 화폐, 특히 동전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⁴⁸⁾

V. 맺음말-화폐와 청대 시장론

맺음말에서는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청대 중기 물가동향에 대한 연구를 정리해보도록 하자. 팽신위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초기 연구 경향은 청대 중국의 내재적 변동을 중시하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생각

48) 위와 같은 결론은 저자의 다른 논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리처드·フォン·گران, 「十九世紀中國における貨幣需要と銀供給」, 豊岡康史·大橋厚子編, 『銀の流通と中國·東南アジア』, 山川出版社, 2019.

된다. 全漢昇 역시 해외로부터의 은유입을 증시하면서도 더 중요한 요인으로서 인구증가를 드는 것도 역시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된다.⁴⁹⁾

그 뒤에는 내재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 특히 세계경제와의 연동 속에서 은유입을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점차 통용력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연구자들이 경제학적 지식을 원용하여 어빙 피셔의 화폐수량설(Quantity theory of money, QTM) 즉 물가 수준이 화폐의 수량에 비례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었다. 두 번째는 연구자들이 점점 해외무역을 증시하게 되었다. 특히 윌러스틴의 『근대세계체제』 등의 영향을 받아 개별 국가의 내재적 발전을 증시하기보다는 점점 세계경제와의 연관을 증시하는 견해가 힘을 얻게 되었다. 또한 청대 중국의 해외무역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중국으로의 은유입량이 연구자의 예상보다 상회한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면서 은유입이야 말로 중국 변동의 주요 원인이라는 견해가 점차 주류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사 연구자의 연구에 기반하여 은유입과 화폐수량설을 가장 개설적인 형태로 정리한 저작이 안드레 군터 프랑크의 『리오리엔트』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연구가 진전되면서 명말청초 당시의 지식인들도 은과 동전의 기능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인식했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고,⁵⁰⁾ 점차 화폐 구조는 그대로 중국 사회구조에 대한 논의로 발전해 나갔다. 林滿紅의 논의 동전과 은의 기능하는 영역이 농촌과 도시(城市)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49) 1980년대 吳承明의 연구 역시 아편전쟁 이전 국내 상품 유통액은 총계 약 3억 5,000만 냥인데 수출액은 1,350만 냥(3.86%)이고, 수입액은 380만 냥(1.09%)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외부적인 요인을 그렇게 증시하지 않고 있다. 吳承明, 『中國資本主義與國內市場』,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253쪽.

50) 岸本美緒, 「清代中國の經世論における貨幣と社會」, 歴史學研究會編, 『越境する貨幣』, 青木書店, 1999 참조.

그 뒤 임만홍의 연구와는 무관하게 윌리엄 스키너의 농촌시장 구조 연구⁵¹⁾에 영감을 받아 시장구조와 화폐를 연결지어 중국 경제사를 설명하려는 黒田明伸의 논의가 등장하였다(〈표 12〉 참조). 그의 논의는 청대 중국의 경우, 상급시장은 은을 주로 사용하였고, 하급시장은 동전을 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시장의 층위마다 그 사용화폐가 각각 달랐다는 점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였다. 그리고 소액화폐를 사용하는 하위시장일수록 소농민들이 지역시장에 참여하기 쉬운 상태이고 정부의 제도적인 규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거래, 즉 유동성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특징이다(‘자기 조직화된 지역유동성’).⁵²⁾ 그리고 청대 농촌시장은 수급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한다고 상정하고 있다. 반면 16세기에 서구를 중심으로 일국내의 유동성 전체를 균질적으로 만들어 갔던, 즉 비대칭성을 감소시켜 시장구조와 화폐를 대칭적으로 만들어갔던 ‘본위제’가 국민국가와 함께 등장하고, 결국 본위제가 ‘승리’를 거둔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반면 岸本美緒는 은과 동전의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선구적으로 지적하였지만,⁵³⁾ 양자가 상호 환산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양자를 그렇게 단절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또한 중국사회를 개개의 지역경제가 내부에서 서로 연결되어 순환구조를 이룬다고 파악하지 않고,⁵⁴⁾ 대외교역을 기점으로 하여 여러 지역경제가 연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점 역시 또 다른 특징이다.⁵⁵⁾ 지역시장 내에서 유효수요가

51) 윌리엄 스키너, 양필승 역, 『중국의 전통시장』, 신서원, 2000.

52) 구로다 아키노부, 정혜중 역, 2005, 164쪽.

53) 岸本美緒, 『清代中國の物價と經濟變動』, 247-250쪽 참조.

54) 岸本の 견해에 따르면 강남지역을 비롯한 청대 중국 농촌시장은 직접 생산자 상호간의 분업에 입각하여 교환을 주체로 한 폐쇄적인 ‘局地的 市場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외부의 수요를 대상으로 한 객상의 운집이 시장의 변역을 지표로 하였고, 반면 객상의 두절은 농민생활에 커다란 타격을 가져왔다고 한다. 岸本美緒, 『清代中國の物價と經濟變動』, 262쪽 참조.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효수요는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파악하여 오즈카 히사오(大塚久雄)가 제창한 ‘국지적 시장권(local market area)’론을 비판하고 있다. 즉 앞서 黒田明伸과는 달리 岸本은 청대 지역시장 내에서 수급과 공급은 자율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⁵⁶⁾ 그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급변동을 제어할 수 있는 국가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와 사회와의 연관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⁵⁷⁾

陳春聲 역시 자신만의 시장관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반드시 이것이 위에서 논의해 온 물가 변동과 관련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큰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그에 따르면 18세기 광둥지역에서 여러 종류의 농촌시장이 발달하고 시장 메커니즘이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시장에서의 상품교역자의 지위는 서로 평등하고, 교역품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시장관계’가 진전되어 비경제적 요소가 점점 감소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⁵⁸⁾ 그러나 광둥 지역에 광범하게 등장한 중족조직을 배경으로 하여 그 사회적 역량을 증대시켜온 紳士層은 지역사회에 대한 통제력의 유지와 해당 중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것을 원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안정에 대한 요구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요구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55) 岸本美緒, 『清代中國の物價と經濟變動』, 260-262쪽 참조.

56) 岸本美緒, 『清代中國の經世論における貨幣と社會』, 70쪽.

57) 岸本の 이와 같은 시장관은 국가론과 유기적인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르면 명말 중국의 지역사회는 개방적·다극적·유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1644년 입관 이후, 청조는 지방사회 내부의 자립적 극단의 한 축으로서의 토호세력을 일소하려고 하는 한편, 황제의 일원적 지배하에 복속시켜 일군만민적인 덕치주의로 통합시키려고 하였다라고 명말과 청초의 사회상황을 비교하고 있다. 岸本美緒, 『明清交替と江南社會』, 東京大學, 1999, 제1장 「明末清初の地方社會と「世論」」 참조.

58) 陳春聲, 『市場機制與社會變遷』, 195쪽.

이러한 상충되는 목표 속에서 현실의 사회적 수요와 시장발전의 경제적 요구가 순조롭게 함께 발전할 수 없었고 결국 시장의 발전이라는 경제적 요구는 사회적 안정이라는 목표로 인해 압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⁵⁹⁾

어떤 면에서 보면, 위에서의 논의들은 청대 시장사회를 순수한 경제적 법칙이 작동하는 ‘순수한 시장사회’인지 아니면 정치권력과 신사권력의 가치법칙에 대한 개입 등과 같은 시장외적 요소가 더 본질적인 요소였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국가와 연결지어 본다면, 하이에크의 시각처럼 시장은 국가권력과 무관하게 완결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 케인즈의 시각처럼 시장 내에서 수요와 공급이 완결되지 않은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였다는 견해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⁶⁰⁾ 더 나아가서 청대 중국은 시장에서 얻어진 이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시 시장으로 환류되어 투하되는 사회였는가, 아니면 그 이윤은 시장을 떠나서 시장을 통제하는 정치권력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사회였는가라고도 의견이 나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⁶¹⁾

1997년 임만홍과 岸本美緒 사이의 논쟁이 있기 전에 임만홍은 가경·도광연간에 벌어진 화폐 논쟁을 다루었다.⁶²⁾ 그는 이 논문에서 당시 청말 경제론을 ‘도덕파’와 ‘실무파(務實派)’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양자의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덕파는 인간의 이기적 행위를 비판하는 입장

59) 陳春聲, 『市場機制與社會變遷』, 196쪽.

60) 로버트 하일브루너, 『세속의 철학자들』, 이마고, 2005, 362-363쪽.

61) 이러한 경향은 헬렌 더스틴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Dunstan, Helen., *State or Merchant? Political Economy and Political Process in 1740s Chin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6.

62) 林滿紅, 「嘉道年間的貨幣危機論爭中的社會理論」,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23, 1994.

〈표 12〉 嘉慶·道光年間の 관료 그룹 구분

	실무파	도덕파
주요 인물	王夔, 管同, 徐夔, 孫鼎臣	魏源, 林則徐, 許榘·許楣, 包世臣
개인 욕망	긍정	부정
국가 통제	찬성 케인즈와 유사	반대 하이에크와 유사
불환 지폐	발행 찬성	발행 반대

이었고, 당시 사회에 만연한 銀貴 현상을 인간의 탐욕 탓으로 분석하곤 하였고, 사욕추구의 상업행위를 공격하여 농업보호를 제창하는 동시에,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주장하였다. 그들의 화폐론 가운데 하나는 중앙이 관리하는 鈔(不換紙幣) 및 실제가치보다 명목 가치가 큰 大錢을 발행하여 단기적으로 정부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화폐위기를 타개하려고 하였고, 궁극적인 목표로 화폐의 발행증가를 통하여 농업발전과 도덕교육진흥을 목적으로 하였다. 임만홍에 따르면 도광년간의 불황기에서 王夔의 鈔 발행 논의는 마치 대공황시기의 공채발행이나 공공사업을 지지했던 케인즈의 논의와 유사하다고 한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로서는 管同, 徐夔, 孫鼎臣 및 불환지폐 발행론의 중심인물인 王夔(1786-1843)가 있었다.

한편 그 반대 입장에 섰던 실무파(務實派)들은 인간의 이기적인 경향을 부정하지 않고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도덕파보다도 상업중시의 경향이 강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비판하였다. 국가의 화폐권을 강화하려는 점에서는 그들은 도덕파와 일치하지만, 화폐의 액면가치는 그 실질가치와 같아야만 주장한다는 점에서 국가권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에 속하는 인물들은 魏源, 林則徐, 包世臣, 馮桂芬 등의 경제관료들 이외에도 王夔과 논쟁을 벌였던 許榘·許楣 형제 등을 들 수 있다. 임만홍에 따르면 王夔과 허씨 형제 및 다른 실무파 사이의 논쟁은 마치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논쟁과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청후기 관료들 사이에서도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혹은 개입해서는 안되는가라는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어찌 보면 당시 사람들도 시장이 어떻게 작동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지녔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소 거칠게 말하자면, 1990년대 이후의 연구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 다시 해외로부터의 은유입을 강조하기 보다는 중국 사회의 내부 질서 문제로 다시 복귀하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해외로부터의 은유입이 중국사회에 영향을 끼쳤다는 식으로는 물가변동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했다고 말하기 불충분해진 것만은 사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복잡성을 낳은 청대 중국사회가 어떠한 시장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도 규명해야 할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2020.11.23. 투고 / 2020.12.11. 심사완료 / 2020.12.21. 게재확정)

[Abstract]

On the grain price, population, and the currency in the middle of the
Qing Dynasty

– Review of international researches on the grain price fluctuation
during the Qinglong Emperor's reign in the Qing Dynasty

Hong, Sung-hwa

This paper summarizes several theories about the causes of inflation during the Qinglong Emperor's reign in the Qing Dynasty. In the early days, Peng xinwei(彭信威) and Han-Sheng Chuan(全漢昇) supposed financial expenditure and population growth were mainly attributed to the causes, respectively. After that, the view of assuming that the inflow of silver as the main cause of the external factors rather than the internal factors, especially in the connection with the global economy gained popularity. However, as the Qinglong year was divided into two periods, the first phase of 1736-1775 was the economic recession because the population growth was faster than currency increase and the currency increase was faster than agricultural growth. The other B period of 1776-1795 was considered as a booming period vice versa. On the other hand, Kishimoto Mio(岸本美緒) refuted the claim based on the argument the early period of the Qinglong year was also a booming period.

Most researches since the 1990s, including Kuroda Akinobu(黒田明伸), Richard von Glahn, and Peng kaixiang(彭凱翔), showed the trend

of turning to the internal order issue in Chinese society rather than emphasizing the inflow of silver from overseas. At the current time, it is fact that it is not enough to say that the cause of the inflation in the Qing Dynasty indicated simply to population growth and currency increase in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economic fluctuation. However, it is required to acknowledge that there are still many factors to be identified as to what kind of market mechanism in the Qing Dynasty, which produced such complexity.

□ Keyword

Qing Period, Qianlong Period, Market, Money, Silver, Coin, Price, Grain Prices

[참고문헌]

- 구로다 아키노부, 정혜중 역, 『화폐시스템의 세계사-‘비대칭성’을 읽다』, 논형, 2005.
- 기시모토 미오, 노영구 역, 『동아시아의 「근대」』, 와이즈플랜, 2018.
- 로버트 하일브루너, 『세속의 철학자들』, 이마고, 2005.
- 리처드 폰 글란, 류형식 역, 『폰 글란의 중국경제사』, 2019.
- 서성철, 『마닐라 깎리온 무역』, 산자니, 2017.
- 안드레 군더 프랑크, 이희수 역, 『리오리엔트』, 이산, 2003.
- 윌리엄 스키너, 양필승 역, 『중국의 전통시장』, 신서원, 2000.
- 피에르 빌라르, 김현일 역, 『금과 화폐의 역사-1450-1920』, 까치, 2000.
- 허핑티(何柄棣), 정철웅 역, 『중국의 인구』, 책세상, 1994.
- 余捷瓊, 『1700-1937年中國銀貨輸出入的一個估計』, 商務印書館, 1940.
- 吳承明, 『中國資本主義與國內市場』,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 吳承明, 『中國的現代化: 市場與社會』, 三聯書店, 2001.
- 王業鍵, 『清代經濟史論文集』 I · II · III, 稻鄉出版社, 2003.
- 林滿紅, 『銀線: 19世紀的世界與中國』, 江蘇人民出版社, 2011.
- 田汝康, 『中國帆船貿易與對外關係史論集』, 浙江人民出版社, 1987.
- 全漢昇, 『中國經濟史論叢』 1冊 · 2冊, 新亞書院, 1972.
- 鄭永昌, 『明末清初的銀貴錢賤現象與相關政治經濟思想』, 國立台灣師範大學歷史研究所, 1994.
- 陳昭南 『雍正乾隆年間的銀錢比價變動』, 中國學術著作獎助委員會, 1966.
- 陳春聲, 『市場機制與社會變遷-18世紀廣東米價分析』,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0.
- 彭信威, 『中國貨幣史』(제2판), 人民出版社, 1965.

市古尙三, 『清代貨幣史考』, 鳳書房, 2004.

百瀬弘, 『明清社會經濟史研究』, 研文出版, 1980.

小竹文夫, 『近世支那經濟史研究』, 弘文堂書房, 1942.

岸本美緒, 『清代中國の物價と經濟變動』, 研文出版, 1997.

豊岡康史・大橋厚子編, 『銀の流通と中國・東南アジア』, 山川出版社, 2019.

黒田明伸, 『中華帝國の構造と世界經濟』, 名古屋大學出版會, 1994.

Dunstan, Helen., *State or Merchant? Political Economy and Political Process in 1740s Chin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6.

Man-houng Lin, *China Upside Down: Currency, Society, and Ideologies, 1808-1856*,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6.

Chuan Han-sheng & Kraus, Richard., *Mid-Ching Rice Markets and Trade: An Essay in Price History*, Harvard University East Asian Research Center, 1975.

Jerome Chen, *State Economic Policies of the Ch'ing Government, 1840-1895*, New York, 1980.

Rawski and Li eds, *Chinese History in Economic Perspectiv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Wilkinson, Endymion, *Studies in Chinese Price History*, Garland Pub., 1980.

문명기, 「미곡을 통해 본 청대 중국사회의 시대상—糧價 자료 정리 및 糧價 연구의 회고」, 『중국근현대사연구』 50, 2011.

홍성화, 「18世紀 中國 江南地域의 貨幣와 物價—汪輝祖와 鄭光祖의 기록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30, 2015.

- 羅暢, 「兩套清代糧價數據資料的比較與使用」, 『近代史研究』 2012-5期.
- 劉崑, 「清代糧價奏摺制度淺議」, 『清史研究通訊』 1984-3期.
- 岸本美緒, 「評林滿紅「世界經濟與近代中國農業-清人汪輝祖一段乾隆糧價記述之解析」,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28, 1997.
- 吳承明, 「利用糧價變動研究清代的市場整合」, 『中國經濟史研究』, 1996年第2期.
- 王道瑞, 「清代糧價奏報制度的確立及其作用」, 『歷史檔案』 1987-4期.
- 林滿紅, 「世界經濟與近代中國農業—清人汪輝祖一段乾隆糧價記述之解析」,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編, 『近代中國農村經濟史論文集』,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89.
- 林滿紅, 「戰爭與和平:王宏斌著『晚清貨幣比價研究』之評介」, 『近代中國史研究通訊』 11, 1991.
- 林滿紅, 「嘉道年間的貨幣危機論爭中的社會理論」,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23, 1994.
- 林滿紅, 「與岸本教授論清乾隆年間的經濟」,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28, 1997.
- 鄭永昌, 「清代乾隆年間樞關管理與稅收變化分析」, 『兩岸發展史研究』 5, 2008.
- 陳金陵, 「清朝的糧價奏報與其盛衰」, 『中國社會經濟史研究』 1985-3期.
- 陳仁義·周昭宏·王業鍵, 「十八世紀東南沿海米價市場的整合性分析」, 『經濟論文叢刊』 30-2기, 2002.
- 黃國樞·王業鍵, 「十八世紀中國糧食供需的考察」,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編, 『近代中國農村經濟史研討會論文集』, 1989.
- 黃國樞·王業鍵, 「清代糧價的長期變動」, 『經濟論文』 9-1, 1981.
- 宮崎市定, 「書評: 吉川幸次郎「宋詩概說」」, 『東洋史研究』 22-1, 1963(『宮崎

- 市定全集』24권, 岩波書店, 1994 수록).
- 服部春彦, 「16・7世紀におけるスペインの新世界貿易とフランス」, 『史林』66-6, 1983.
- 浜口福寿, 「明代の米價表示法と銀の流通-明代貨幣史覺書」2, 新潟県立新潟中央高等学校, 『研究年報』15, 1968.
- 寺田隆信, 「明末における銀の流通量について」, 『田村博士頌壽東洋史論叢』, 1968.
- 森正夫, 「『錫金識小録』の性格について」, 『森正夫明清史論集』3卷, 汲古書院, 2006.
- 佐佐木正哉, 「阿片戦争以前の通貨問題」, 『東方學』8, 1954.
- 則松彰文, 「清代中期江南における流行衣料について」, 『和田博徳教授古稀記念 明清時代の法と社會』, 汲古書院, 1993.
- 則松彰文, 「清代乾隆期の人口増加米貴説に」, 『福岡大学人文論叢』46-3, 2014.
- 和田清一, 「清代江南の世相と土風」, 小野和子編, 『明末清初の社會と文化』,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6.